

미래를 향해 투지가 빛나는 대전·충남 양돈조합



고도로 발달된 정보, 기술, 유통,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

「현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특히 UR협상으로 인하여 국내가 아닌 국제경쟁에서 양돈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종합조합으로는 각 업종별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전문성 결여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양돈인만을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하여 단일품

목의 전문조합을 형성, 발전시켜 고도로 발달된 정보, 기술, 유통,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충남 양돈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송건섭 대전·충남 양돈조합장은 설립동기를 밝혔다.

천안지역을 중심으로한 본회 회원 10여명을 중심으로 조합설립

대전·충남 양돈조합(조합장: 송건섭)은 '89년 12월부터

천안지역을 중심으로한 본회 회원 10여명을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90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 양돈조합을 설립할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전문조합에서 종합조합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종합조합이 먼저 설립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농업에 관계되는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또한 양돈인들의 전문조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양돈인들을 규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 심문근 조합사무는 말한다.

그러나 조합설립 1년만인 현재 조합원수 228명, '90년도 총 출하두수 44,253두, 취급물량이 91억원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3월 25일 축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했으며 조합직원(11명)과 회원들이 쓰고 있는 본회 천안천원지부 옆에 있는 조합은 비좁아 4월10일 새 건물로 이전했다.

조합 사무실 건평 120평 3층 건물로 이전

조합원들의 편의제공, 업무의 활성화, 조합발전에 한 몫을 담당할 새 사무실(충남 천안시 구성동 414-13, 전화 : (0417) 567-7940~2)은 총 건평이 120평 3층 건물로 1층은 사료, 약품 등 판매장을 설치하고 2층은 조합사무실 3층은 조합장실과 회의실을 만들어 사용키로 했다.

현재 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료와 약품의 구입판매, 돼지출하와 유통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료와 약품은 공장에 직접구입 하여 일반 도매상보다 10~20% 싼 가격으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조합원이 이를 신청하면 전량 배달해 주고 있다. 사료와 약품비는 조합에서 외상으로 60일간 공급해 주고 이후 돼지를 출하했을

조합원에게 최대의 봉사 와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



▲ 송건섭 조합장

때 그 정산대금으로 사료나 약품을 받아 일반도매상과 가격이 같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고 한다.

출하공급처의 다변화에 노력

돼지판매는 대부분 가락동 축협공판장, 우성농역 등에 하고 있으며 일부는 롯데햄과 사조축산 등 육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이 때의 가격은 납품전날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계산된

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출하공급처가 많지 않아 돈육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정된 출하공급처의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한다.

사료판매는 지난해 4월 시작하여, 4월 413톤에서 12월 1,280톤으로 3배의 성장을 할 만큼 조합원들의 많은 이용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료, 약품, 돼지출하 등 조합을 이용한 거래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익은 작년 한해 한농가당 평균 1,000만원

정도에 달했다고 한다.

국내가 아닌 세계와의 경쟁으로 양돈산업 인식할 때

조합을 결성하여 얻은 결과로서 먼저 힘있는 자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각 농가에 기술보급, 가격변동에 따른 출하두수 조절 기능,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양돈인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전문조합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직 남아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현재 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천안에서 먼 곳의 공주, 서산 등 양돈인의 조합가입이 많지 않아 대전·충남 전지역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각 지소의 설치와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송건섭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인식 부족에 대하여「조합의 주인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내가, 우리의 목표는 국내가 아니라 세계의 농촌이라는 것, 혼자서 이익에 집착 말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 조합의 발전은 내가 참여하고 이용할 때 이룩되고 그 이득은 바로 내게로 온다는 것 등의 생각을 갖고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이제 우리의 농촌도 많이만 생산하고 양만 중

시하며 좁게 국내 생산량만을 비교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선진국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품질로서 경쟁하여 이겨야 할 시대가 왔다고 판단 된다」고 말한다.

대전·충남 양돈조합의 장기 발전 계획에서 '90년, 축산물 종합 판매장 설치, 대규모 축분(돈분, 계분 및 우분 포함) 발효 공장 설치, 돼지 출하물량을 년 8만두로 증가시키고 사료판매 물량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92년에 신규업무의 개시로 조합원의 자금지원에 역점을 두고 중돈사업장을 설치하여 조합원의 종축개량에 적극협조하며 액상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모 든기반의 구축과 각 지역별 지소설치와 축분발효공장 설치의 기반조성 등 향후 축산물 가공처리공장을 설치하여 조합원의 생산품을 자체 처리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향후 양돈을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조합이 모든 것을 해주는, 조합원에게 최대의 봉사과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와 조합 상부상조

송건섭 회장은 협회와 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협회는 양돈의 대표성을 갖고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호막이 되어주고 조합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소득을 유도하여 협회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상부상조의 협력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조합은 금전적인 소득을 안겨주고 있어 많은 양돈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만 협회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잘모르고 있으므로 협회의 활동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조합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유통부문에 많은 역점을 두고 각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 업무를 질적으로 심도있게 강화하여 양돈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조합, 조합원, 직원 삼위일체로 성장을 거듭

만 일년간의 사업수행으로 사업실적이 13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월 출하물량도 5천두에 이르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충남 양돈조합은 올 연말 200억 이상의 사업실적을 거행할 계획과 조합, 조합원, 직원 삼위일체가 되어 양질의 제품으로 세계를 향해 달리자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지가 빛나고 있다. 